

#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비한 농민의 자세

강 춘 성

경남낙농업협동조합장

1950년대의 지방자치제에 직접간접으로 참여하였던 많은 사람들은 지방자치제에 대하여 회의를 느낄지 모른다. 특정 권력의 강화를 위해 이용 당하였고 지역간, 파벌간, 족벌간의 갈등, 수많은 부정선거의 사례 등이 지방자치제에 나타날 수 있는 역기능이었기 때문에 민주화 과정에서 기초가 되며 지역민의 복지증진과 권익옹호, 지역사회 발전에 있어 주민들의 의사가 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이 제도를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계층별 업종별로 볼때 정치권 밖에서 서러움을 받아 왔던 농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방

자치제의 조속한 실시는 어쩌면 절박한 요구일수도 있을 것이다. 권력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민주적 의사 결정과정이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므로서 지역발전의 주체로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아울러 농민들이 자기 의사를 지역사회 발전에 반영시킨다면 지역 농업진흥과 더불어 농가소득증대도 가져올 것이다.

농업정책이나 기술지도가 중앙일변도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방향으로 발전될 것이며 이로 인한 적지적소에 적합한 작목이 선택

되고 주산단지화 할 것이다.

농민들의 권익신장 면에서도 괄목할만한 발전이 있을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의사반영을 계기로 자주의식이 싹트고 자랄것이며 약자적 위치에 있는 농민들의 결속없는 목적달성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조선시대로부터 절대 봉건 통치하에 자주의식을 갖지 못하고 관준민비의 전통적 사고에 젖어 맹종과 아부를 생존의 수단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던 과거를 돌이켜 보면 지방자치제의 실시는 농민의 의식개혁에 일대전기를 마련할 혁명적인 계기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

## 왜 농민들은 정치권에 소외 당하였나?

농민들은 못산다.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뒤지고 있다. 최근에 와서 이러한 현상이 더욱 깊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며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산업화 과정에서 필연적인 현상이라고 하는 등 수많은 요인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지만 이 지면에서는 농민 내부에서 찾아 보고저 한다. 농민인 내 잘못 때문에 온 결과가 아닐까 자문하여 본다. 나의 귀중한 권리를 대항해 줄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조합장 선거 등 각종 선거에서 제대로의 주권을 행사하였는가 주권을 위임받은 그들에게 정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가, 입후보자로서 활동할 때는 무엇이든 해줄 것으로 약속을 하고도 당선된 후에는 언제 보았느냐는 듯한 태도, 농민들 앞에서 공언한 것도 식언을 예사로 하는 것은 우리들 농민들이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것은 아닐까 곰곰히 생각해 보아야 한다.

평소에 정치로부터 소외 내지 외면 당하고 나서 다음 보자고 버르다가도 선거철이 되면 또 권력과 금력의 시녀가 되어 제권리 제대로 행사도 못하고 지연, 혈연 등 비민주적인 연고에 따라 나의

권리행사를 얼마나 해왔는가? 『당신이야 말로 농민 뜻 외면하니 어떤 압력을 가해도 무슨 연고를 동원해도 찍어 줄수 없다』는 분별있는 주권행사가 없었기에 농민들이 못살아 왔고 못살수 밖에 없었다고 본다. 정치인들이 농민을 보는 시각은 『농민들이야 그때가서 적당히 구슬린다면 쉽게 넘어 올수 있는 유권자들이다. 권력의 발이 누르고 금력의

**평소에 정치로부터 소외 내지 외면 당하고 나서 다음 보자고 버르다가도 선거철이 되면 또 권력과 금력의 시녀가 되어 제 권리 제대로 행사도 못하고 지연, 혈연 등 비민주적인 연고에 따라 나의 권리행사를 얼마나 해왔는가?**

손을 내민다면 문제없다. 게다가 지연, 혈연 등 사돈의 팔촌까지 등장하는 것이 선거이니 농민을 위한 정책쯤이야 외면한들 별 상관 있겠느냐』고 생각하고 있다. 농민들을 외면하는 정치가가 선거에 당선될 수 없다면 우리 농민들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울부짖지 않아도 좋을 것이다. 민주화 바람과 함께 우리들도 권리주장을 할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

다. 나의 권리가 어떻게 행사되고 있는가 협동조합장에서부터 대통령까지 수많은 선거에서 권리행사를 분명히 못한 결과로 오늘 우리들 농민들이 이렇게 당하고만 있다는 것을 같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 농민들이 제몫을 찾을수 있는 기회로 삼자

민의를 묻고 존중한다고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선거를 하면서 민의를 묻고 반영하는 기초단위인 지방자치체가 지금까지 늦추어 진것은 주민들의 자치의식과 자치능력 부족 때문에 남이 해주기를 기다릴수만은 없다. 그들이 우리 농민들을 위해 자의적으로 무엇을 해주기를 기대할수 없는 것이다. 내가 먼저 우리가 앞장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농업 활동을 할수 있는 여건들은 점점 나빠지고 있다. 농산물 수입개방이 97년까지 될수 밖에 없다면 현재와 같은 영농조건으로 농촌에 살아 남을수 있는 농민은 있을수 없을 것이다. 나와 우리들의 힘으로 살아 남을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만들어야 한다.

힘은 들겠지만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고 본다. 오래전부터 제도적으로 농업을 보호육성하여 그나라 경제가 안정적인 발전을 하고 있는 선진국을 알고 있다. 우리나라 보다 잘사는 나라치고

농업보호 없는 나라 없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우리 농민만을 위해 농업정책을 다루라는 것이 아니라 4,000만 국민을 위해 농업을 보호육성해달라는 것이다. 지방자치제 실시에 임하여 나 스스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농업과 경제발전에 농민의 올바른 의사를 반영시킬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모처럼 찾아온 이 기회를 나의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민주의식, 자주의식부터 가져야 겠다. 또한 이에 걸맞게 능력도 갖추어야 겠다.

## 농업도, 농민도, 농촌도 살아남기 위해

최근에 많이 쓰이고 있는 용어 중에 국제화와 개방화, 지방화와 분권화, 민주화와 자율화 등이 있다. 이런 용어가 절대 통치권자의 획일적인 통치하에서 맹종을 미덕으로 삼고 생존수단으로 살아왔던 농민들에게 더없는 부담이 아닐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용어에서 볼수 있는 현실을 부담이 크더라도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 나의 것으로 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래야 살아남을수 있다.

**첫째, 민주시민으로서 손색이 없는 주권행사를 하자.**

지방자치제는 민주주의의 기초요 민주시민으로 성숙되는 과정



이며 자유, 평등, 자주로 향하는 지름길이라고 했다. 나하나 개인의 올바른 주권행사 없이는 인류의 오랜 염원인 자유나 평등을 누릴수도 없을 것이며 농민으로서 살아남을수도 없을 것이다.

올바른 주권 행사를 위해서는 권력이 강한 힘으로 우리를 짓밟더라도, 금력이 우리를 유혹하더라도, 혈연지연 등 연고가 나의 판단을 흐리게 하지라도 단호히 배격할 수 있는 시민의식을 가져야 겠다.

오늘의 나의 결단이 내일에 나와 내가 속해있는 농촌사회를 밝힐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주권행사를 하자는 것이다.

**둘째, 농민들도 자치의식과 자치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자.**

가난해서 그리고 배우지 못해

서 자치의식이 부족할수 밖에 없고, 자치능력 또한 있을수 없다는 말을 종종 듣는다.

학교 공부만이 배우는 과정이 아니다.

현대사회에서는 학교외에서 얼마든지 배울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스스로가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이에 따른 대응능력이 없이는 기존 질서 속에 살아남을수 없다. 낙오자가 될 뿐이다. 농촌에는 이런 낙오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사회보장제도에서 피보호자는 될수 있을지언정 지방자치화 시대에서는 농민으로서는 제 역할을 할수 없는 것이다. 농촌사회에서는 어디까지나 농민이 주인이어야 한다. 주인이 주인답지

못하면 머슴에게 뺨을 맞을수 밖에 없다. 주객이 전도될 것이다. 주인은 머슴을 다룰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주인다워야 한다는 것이다.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어떻게 적응하고 나아가서 그 사회를 주도하느냐에 따라 주인의 능력은 평가될 것이다.

### 셋째;피선거권자(후보자)로 적극참여하자

농사일에 전념하고 있는 농민이 회의와 행사에 참석하게 되면 농사가 제대로 될리가 없다. 혼신의 힘을 다 쏟아도 농업의 생산성은 기대치 이하여서 농민들에게 좌절과 슬픔을 안겨주는 현실이다. 그런데 어떻게 지방자치제의 피선거권자로 참여하느냐.

무척 힘들 것이다. 자기 희생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농업문제를 농민이 아닌 사람이 다룰때 얼마나 성실히 정확하게 다루어 줄 것인가, 기대할수 없을 것이다.

성의없이 다룬 정책결정 때문에 우리가 정성들여 지은 농사를 망치게도 할수 있을 것이요 경우에 따라서는 농촌을 등쳐야 할 결과를 가져올지도 모른다고 가정해 보자 어떻게 농촌을 모르는 그들에게 농민문제를 맡길수 있겠는가 내가 주인이 되어 말고 우리가 주인이 되어 말아야 겠다.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지방자치제가 이제 눈앞에 닥아 왔다. 긴날을 기다렸기에 성공적으로 발

전하기를 농민 모두가 기대할 것이다. 지방자치제의 성패는 누구보다 이에 참여하고 담당할 주민들의 손에 달려 있다. 의무를 다하지 않는 권리주장은 있을수 없듯이 지방자치제의 발전을 위한 지역주민의 노력과 훈련, 의식 향상없이 지방자치제가 나에게 농민들에게 큰 선물을 안겨 줄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 토막 상식

### 종이 깔짚의 사용은 생산비를 절감시킨다.

미국 위스컨신주의 도 농장에서 행해진 깔짚비교시험에서는 벧짚과 벧짚보다 무게가 16% 가벼운 신문지를 사용하였다.

벧짚은 톤당 45달러인 반면 신문지는 톤당 30달러로 벧짚을신문지로 대체할 경우 44%의 생산비(깔짚비)를 절감할 수 있었다. 15두의 미경산우(평균체중 100kg)에 1년이상 시험한 결과 약 278달러가 절약되었다. 두 농장의 관리자들은 다 같이 작게 잘라진 신문지가 훌륭한 깔짚이 될수 있다고 말했다. 이 종이 깔짚은 벧짚보다 비용을 약 10~30% 절감할 수 있었다.

·Hoard's Dairyman Vol. 134, No.20·